

2024 갑진년, 청와대에서 '용(龍)감한 설날' 보내세요

- 2. 9.~11. 설맞이 문화행사로 청와대 역사와 문화, 자연 살펴보는 이야기콘서트, 덕담 나누는 다례 행사 진행
- 2. 9.~12. 매일 관람객 400명, 용띠 관람객 100명 청와대 배경 탁상 달력 증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청와대재단(이사장 정갑영. 이하 재단)과 함께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 용(龍)감한 설날'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2. 9.~11. 오후 2시 춘추관 2층에서 이야기콘서트 '청와대, 용감한 이야기', 오후 1시, 3시 춘추관 1층에서 다례 행사 '용감한 덕담나누기' 진행

먼저 청와대의 역사·문화·자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 '청와대, 용(龍)감한 이야기'가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2시 춘추관 2층에서 60분간 열린다. ▲ 9일에는 안창모 경기대 교수의 '청와대의 건축이야기', ▲ 10일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의 '청와대의 역사 이야기', ▲ 11일에는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의 '청와대의 나무 이야기'를 통해 개방 2주년을 맞이한 국민 문화공간으로서의 청와대의 상징과 의미를 살펴본다.

춘추관 1층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1시와 3시, 다례 행사 '용(龍)감한 덕담 나누기'를 60분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2인 1조로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내외국인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와 정신을 배울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 참여 신청은 2월 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개방 누리집(www.청와대개방.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2. 9.~12. 청와대 대표 공간 사진으로 만든 탁상 달력도 선물

아울러 문체부와 재단은 청와대 대표 공간 사진으로 개방 기념 탁상 달력을 만들어 2월 9일(금)부터 12일(월)까지 청와대 입장문(정문, 춘추)에서 매일 관람객 400명에게 선착순으로 선물한다. 용띠 관람객은 대정원 종합안내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매일 100명 선착순으로 달력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청와대 설맞이 행사 ‘용(龍)감한 설날’ 프로그램

담당 부서	지역문화정책관실 문화시설기획과	책임자	과장	이승재 (02-3771-8631)
		담당자	서기관	박진석 (02-3771-8641)
담당 부서	청와대재단	책임자	팀장	백기동 (02-3771-8671)
		담당자	사원	최현희 (02-3771-8673)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붙임

청와대 설맞이 행사 ‘용(龍)감한 설날’ 프로그램

□ 문화행사

구성	프로그램명	일시 및 인원	장소	내용
이야기 공연	청와대, 용(龍)감한 이야기	2. 9.(금) 14시 / 150명	춘추관 2층	청와대의 건축이야기 (강사 : 안창모 경기대 교수)
		2. 10.(토) 14시 / 150명		청와대의 역사이야기 (강사 : 최태성 한국사 강사)
		2. 11.(일) 14시 / 150명		청와대의 나무이야기 (강사 : 박상진 경북대 명예교수)
다례	용(龍)감한 덕담나누기	2. 9.(금) ~ 11.(일) 13시, 15시 / 각 24명	춘추관 1층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차와 덕담을 주고받는 찻자리 체험

□ 탁상 달력 배포

기간	대상	배포처	수량
2. 9.(금) ~ 12.(월)	청와대 입장 관람객	입장게이트 (정문, 춘추)	매일 선착순 400개 (바코드 1개 기준 1부)
	용띠해 입장 관람객	대정원 종합안내소	매일 선착순 100개 (신분증 기준 1부)

